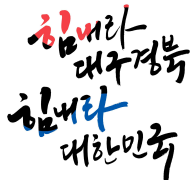
 금융위원회	보도해명					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4.8.(수)	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손 주 형(02-2100-2830)		담 당 자	이 영 민 사무관 (02-2100-2833)		
	IBK 자산운용 운용총괄본부장 신 동 결(02-727-8843)			IBK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김 보 형(02-727-8833)		

**제 목 :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수급을 보완하는 당초 취지
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**
[이데일리 4.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이데일리는 4.7일자 인터넷판 기사 「‘시장 소화원칙’ 내걸더니... 더 싼 값 부른 채안펀드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시장참여자 중에서 채안펀드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.
 - 시장관계자는 “금융당국이 채안펀드 규모는 ‘08년의 2배로 확대 해놓고 당시 담았던 BBB+ 채권조차 외면하고 있다”면서 “전체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”라고 꼬집었다고 보도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- ☐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 절차에서, 발행사·대표주관사는 희망금리밴드*·발행예정물량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입찰금리·물량을 제시하며,

* 발행사·대표주관사가 회사채 발행 의향이 있는 금리의 범위

- 수요예측 절차 마감 후, 발행사·대표주관사가 발행금리 및 발행물량을 확정합니다.

○ 따라서, 채안펀드 운용사는 입찰과정에서 다른 투자자의 입찰 금리·물량을 알 수 없으므로, 채안펀드가 더 싼 값을 불렀다는 주장은 회사채 발행절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또한, '08년 채안펀드 운영 당시 매입대상 회사채는 AA- 이상으로서,

○ '채안펀드가 BBB+ 등급 채권을 담았다'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 해외감염병 NOW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